

불확실성과 관습 그리고 경제정책: 케인즈와 포스트 케인지언

황재홍*

요약

본 논문은 불확실성과 정부 개입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케인즈는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학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케인즈 경제학의 특징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불확실성과 정부 개입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케인즈 체계의 일관성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정부 개입의 연결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불확실성과 정부 개입을 연결시키는 케인즈 연구자들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들 논의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불확실성, 관습, 정책

I. 서론

통상 케인즈는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은 케인즈를 먼저 떠올린다. 한편 IS-LM으로 대표되는 케인즈의 신고전학과화에 반대해온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일찍부터 주류 경제학과 차별되는 케인즈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유동성을 선호하게

* 목원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전임강사, e-mail: zootjhong@hanmail.net

되고 자본의 한계효율이 급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실업과 극심한 경기변동을 겪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Akerlof와 Shiller(2009) 등 주류 경제학자들도,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불확실성과 심리’에 있다는 주장에 동참함으로써 불확실성의 경제학으로서 케인즈 이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 체계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불확실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과 정책의 논리적 연결성이 분명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케인즈 이론체계의 핵심으로 간주할 경우 이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 정부개입의 당위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케인즈 체계의 일관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그런데 불확실성과 정부 개입의 연결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불확실성과 정부 개입을 연결시키는 케인즈 연구자들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들 논의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여러 난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래의 비결정성으로서의 불확실성

케인즈적 불확실성(uncertainty)을 정의함에 있어 통상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불확실성과 리스크(risk)를 구분하는 것이다. 리스크와 다르게 불확실성 아래에서는 확률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케인즈가 어떤 의미로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다음의 문구들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나는 ‘극히 불확실한’ 이라는 표현을 ‘가능성이 대단히 적은’ 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쓰지 않는다 (Keynes, 1973a, p.148).

롤렛 게임은 불확실성의 상황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빅토리 채권(Victory bond) 발행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다. 예상 수명은 약간 불확실하다. 날씨도 약간 불확실하다. 유럽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20년 후의 구리가격과 이자율, 새로운 발명의 무용화, 1970년 사회체계에서 개별재산가의 지위 등은 모두 불확실성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률을 계산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단순히 우리는 모른다

(Keynes, 1973b, p.113-114).

이단적 전통의 학자들에 있어 단지 확률의 부재가 불확실성으로 정의되 기에는 불충분하다. 가령 엘스버그(Ellsberg)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항아리에 50개의 빨간색 공과 50개의 검은색 공이 담겨져 있다면 빨간 색 공을 뽑을 확률이 1/2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항아리에 공이 빨간색과 검은색 합쳐서 100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는데 각각이 몇 개인지 모를 경우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모호 성(ambiguity)¹⁾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은 창조와 구조변화의 가능성, 미래의 비결정성 등을 강조한 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동태적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며 시간이 중요한 요 소로 등장한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률적 예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제는 단지 주어진 사건에 대해 확률을 부과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하 지도 못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에 대해 당연히 확률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사결정 당시 관련 정 보는 절대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Dequech, 2000, p.47-48).

케인즈적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오랜 동안 연구해 온 데이비드슨의 경우, 인식론적 불확실성(epistemological uncertainty)과 존재론적 불확실성 (ontological uncertainty)을 구분하고 있다. 인식론적 불확실성은 인간 의 정보 수집과 처리의 한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종류의 불확실성은 결정 론적 세계관과 양립가능하다. 세상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인간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존재론적 불확실 성은 세상의 특성 그 자체이다. 불확실성의 주된 원인은 인간이 자유의지 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데이비드슨에 있어 자유 의지는 미리 정해진 확률분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데이비드슨에게 있어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을 다른 경제학과 구분 짓는 요인은 인간이 자유의 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이외의 다른 경제이론들은 모두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1) 모호성은 확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관련 정보의 부재로부터 발생한다 (Camerer & Weber, 1992, p.330).

다(Davidson, 1996; McKenna & Zannoni, 1998, p.238).

인간의 창조성, 구조변화의 예측불가능성, 그리고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불확실성에 가장 적합한 사례로 슈페터의 혁신론이 거론된다 (Davidson, 1996; Dequech, 2000). 데이비드슨의 존재론적 불확실성은 Shackle의 중대한 결정(crucial decision)²⁾에서 출발한다.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경제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똑같은 의사결정은 결코 반복될 수 없다. 미래가 인간의 의도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의해 미래는 변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은 상당 부분 기업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전개한 불확실성과 기대에 관한 논의는 분명 존재론적 불확실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데이비드슨의 주장대로 케인즈와 슈페터가 동일한 이론체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인즈가 관심을 가진 것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기대이지 미래를 창조하는 상상력을 제공하는 기대가 아니다. 주변 환경의 창조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케인즈가 불확실성 아래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실업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었지 창조적 파괴, 기술진보는 결코 아니었다(Dunn, 2003). 일반균형이론, 합리적 기대이론 등과 비교할 때 케인즈와 슈페터의 이론체계는 열려 있는 미래, 경제주체들의 창조적 행위라는 개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작 이런 개념들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케인즈와 슈페터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의 입장에서 존재론적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딜레마는, 데이비드슨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존재론적 불확실성이 아닌 인식론적 불확실성 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Davidson, 1996, p.485).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기대학과 등 신고전학과와 다르게 오스트리아 학파는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경제주체에게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2) “중대한 시도(crucial experiment)라 함은, 어떤 시도를 행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도 그 자체가 그 시도가 행해지는 상황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Shackle, 1955, p.6)

점에서는 케인즈와 차이가 없다.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공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지식, 불확실성, 시간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수리적, 통계적 방식의 사회과학 연구를 거부하였으며 선부른 미래예측을 경계하였다(Carabelli & Vecchi, 1999).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차이는 불확실성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³⁾, 불확실성 아래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 시장의 균형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실업이나 경제의 불안정성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차이이다(Carabelli & Vecchi, 1999; 2001). 따라서 전자를 강조하는 오스트리아 학파들은 정부 개입에 반대하고 후자를 강조하는 케인지언들은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불확실성 아래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낳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학파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성공하는 기업가는 현재 시장의 부조화를 간파할 수 있으며 이윤을 얻기 위해 어떤 수요가 가장 절박한지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들의 행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느냐 아니냐는 이윤이 발생하느냐 손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에 있어 시장과정이 균형과 조화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인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통상 포스트 케인지언의 이론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Dempster, 1999, p.77). 데이비드슨은 다른 학파와 구분되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론적 불확실성과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의존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비드슨의 논의는 불확실성 아래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시장의 균형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입장에 따라가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데이비드슨은 존재론적 불확실성이 오스트리아 학파와도 구분되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특징임을 강조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학파를 인식론적 불확실성에 국한되는 이론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한 오류일 뿐이다. 정작 방법론 연구에서 존재론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존재론에 있어 데이비드슨 등 포스트 케인지언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의 하이에크 해석은 데이비드슨의 해석과

3) 불확실성과 기대라는 문제에 있어 하이에크와 케인즈를 동일하게 끌어안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새클이라고 할 수 있다. 새클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하면서 동시에 포스트 케인지언에 속하는 학자이다.

다르다. 비판적 실재론자들은 하이에크의 이론을 비판적 실재론에 잘 부합하는 이론으로 묘사되고 있다.⁴⁾ 데이비드슨은 스스로 비판적 실재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비판적 실재론과 다른 하이에크 해석을 내놓고 있으므로, 비판적 실재론의 하이에크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해야하는 부담이 데이비드슨에게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기대학파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성과 사실상의 완전한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부 개입의 무용성을 주장하였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학파는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정보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조화시키고 더 나은 결과로 이끄는 시장의 힘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존재 그 자체가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시장의 실패를 낳는가에 주목해왔고 그 시장의 실패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해 왔다. 데이비드슨 역시 불확실성 아래 유동성에 대한 장기적 수요가 결국 유효수요의 부족과 비자발적 실업을 낳는다는 점에서 화폐의 장기적 비중립성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들의 활동(특히 투자의사결정)은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비드슨은 신고전학과 또는 여타 다른 학파의 불확실성 개념과 케인즈적 불확실성의 개념을 차별화하기 위해, 시장의 효율성을 주장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던 기업가의 창조적 정신을 존재론적 불확실성의 핵심으로 지목함으로써 사실상 정부 개입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효수요 부족과 극심한 경기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활동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만, 존재론적 불확실성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데이비드슨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다. 물론 이는 데이비드슨만의 문제는 아니다. 존재론적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입장(Dequech, 2000; Lawson, 1985)에서는 정부 개입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난해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4) 비판적 실재론 입장에서의 하이에크 해석에 대해서는 Fleetwood (1995) 참조.

Ⅲ. 정부나 공공기관은 개인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정부가 무언가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세상이 불확실하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도 개인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불확실성은 완전한 무지(complete ignorance)를 뜻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불확실성이 완전한 무지를 의미한다면 ‘불확실성의 정도가 약하다 혹은 심하다’라는 구분은 무의미하다. 또한 불확실성이 완전한 무지를 의미한다면 정책당국은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예측할 근거를 전혀 가지지 못하며, 어떤 한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Dequech, 2000, p.43). 이와 관련하여 케인즈 자신은 분명 불확실성의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케인즈는 『확률론』에서 논증의 가중치(weight of argument)를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를 얻으면 논증의 가중치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일반이론』에서 불확실하다는 것이 확률이 낮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케인즈는 『확률론』의 가중치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완전한 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불확실성 아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인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개인에게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인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거나 정도가 약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많은 케인즈 연구자들은 케인즈의 저작에서 위와 같은 논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Carabelli와 Vecchi(2001)는, 케인즈가 개인보다 공공기관이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은 경제적 개입에 대한 옹호와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인즈는 경제주체들이 그룹이나 사회적 단위를 형성할 때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공공기관은 개인보다 더 많은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케인즈의 개혁주의적 태도는 공공기관이 개인보다 더 많은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 지식의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라

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Estrin과 Holmes(1985) 역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는 민간의 의사결정이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제공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정보의 흐름을 강화하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Keynes(1972, p.291-292)는 경제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과 개인이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의 치료는 개인의 영역 밖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해악으로 리스크, 불확실성, 무지가 초래하는 불평등, 실업, 생산의 효율성 저해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치료법은 부분적으로 중앙기관에 의한 통화와 신용의 신중한 통제 속에서 찾아야 하며, 부분적으로 기업 상황과 관련된 많은 정보의 수집과 배포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험적으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보다는 사회적 단위를 구성할 때에 보다 나은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사회적 단위를 구성할 때 항상 덜 총명하다는 것을 경험이 보여주고 있지 않다(Keynes, 1972, p.288).

정부 개입에 대한 케인즈와 케인지언들의 이러한 견해는, 정부는 항상 공익을 추구하며 일반 개인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엘리트주의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가정인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시장에서 더 효율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위의 케인즈와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이를 다시 완전고용으로 회복시키는 시장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의 총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케인지언들의 주장이다. 케인즈적 입장에서 금융불안정성 연구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Minsky(1986)의 경우, 자본주의시스템에 내재하는 불안정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정부(정부의 재정정책)와 큰 은

행(중앙은행의 최후의 대부자 기능)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일단 위기가 발생하고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며 경제위기와 경기침체시 항상 케인즈의 이름이 다시 부각되곤 하였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자산가격 거품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에 대해 케인즈는 분명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가격 거품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막는데 있어 중앙은행이 개인들보다 경제상황에 대해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어떤 의견을 보여왔는가?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규제나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까지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명시적 목표는 물가안정 뿐이었으며 물가가 안정되면 금융안정도 달성된다는 것이 주류경제학의 견해였다(Bordo et al, 2000; Schwartz, 1995).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없다면 중앙은행이 선부르게 자산가격 상승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Bernanke & Gertler, 1999)이 지배적이었다. Greenspan(2002)은 자산가격 거품을 초기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설사 발견한다고 해도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제거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반론을 제시한 자들은 신환경견해(new environment view)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1980/90년대는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었으나 금융불안과 금융위기는 빈번히 발생했던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물가안정에 주목해온 통화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시장 자유화 등 거시경제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물가안정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Borio et al. 2003). 이들은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주류의 입장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크지 않더라도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통화정책을 제시하였다.

신환경견해에 영향을 미친 과거 여러 이론들에는 빅셀-하이에크의 경기

변동이론과 통화정책이 포함된다. 이 이론의 핵심적 개념 중 하나는 자연이자율이다. 실물자산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자연이자율보다 화폐이자율이 낮을 때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고 경기는 과도하게 과열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플레이 압력이 전혀 없더라도 자연이자율보다 화폐이자율이 낮다면 금융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 압력이 없더라도 긴축정책(화폐이자율 인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자연이자율이 이론적으로 정확히 정의되기 어렵고 현실에서 자연이자율을 찾아낸다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이 기존 학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빅셀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자연이자율 개념을 폐기하였다.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자연이자율 개념의 폐기를 통해 ‘실물분석’과 대비되는 진정한 의미의 ‘화폐분석’이 케인즈 이론체계에 도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이론』 체계에서 경기변동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투자의 변동을 초래하는 자본의 한계효율이며 이는 경제주체들의 불안정한 장기기대에 의존하므로 경제의 극심한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극심한 경기변동을 막으려면 경제주체들의 장기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이자율 개념이 경제의 ‘실체’, ‘핀더멘탈’을 상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본의 한계효율은 인간들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적절한 자본의 한계효율, 적절한 자산가격이란 핀더멘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근거가 박약한 관습(convention)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일반이론』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빅셀-하이에크 체계에서는 비록 정의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경제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일반이론』 체계에는 적절한 자본의 한계효율, 적절한 자산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거품이 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가격 거품에 대해 중앙은행이 일반 경제주체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의 케인즈 연구자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인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융불균형

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이나 시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류이론에 대해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이론』 체계에서는 자본의 한계효율, 자산가격의 펀더멘탈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있을 수 없다.

IV. 관습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불확실성 아래 이성적 계산이 불가능할 때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케인즈는 관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암묵적으로 사실상 일종의 관습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습의 본질은 -물론 그것이 그리 단순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이 무기한 계속된다고 가정하는데 있다 (Keynes, 1973a, p.152).

우리 자신의 판단이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다른 이들의 판단에 의존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다수 혹은 평균적 행동을 따르고자 한다. 다른 이들을 따라하려는 이러한 개인들의 사회심리를 관습적 판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Keynes, 1973b, p.114).

관습에 대한 케인즈의 서술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과 평균 혹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습에 의한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양립 가능한 것인가?

관습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케인즈 연구자들 사이에도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⁵⁾ 첫째, 관습을 비합리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5) 케인즈의 관습을 둘러싼 케인즈 연구자들 사이의 보다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Dequech(1999), Skidelsky(1992)를 참조.

해석이다. 투자계획은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성적 충동'에 의존한다는 케인즈의 서술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케인즈 이론의 상징물 중 하나이다. Shackle(1967, p.228)은 관습을 이성의 대체물로 보았다. Winslow(1986)도 일반이론에 묘사된 행동을 비합리적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비합리성의 원천은 심리적인 것이다. 케인즈는 퇴장본능, 화폐에 대한 사랑을 심리적 성향과 동일시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시스템 오작동의 핵심이 된다. 무의식적 충동이 합리적 행동을 왜곡한다.

둘째, 관습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또는 그렇게 판단할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습은 확대된 합리성 개념과 양립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관습이 합리성과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 극단적인 주관주의(subjectivism)와도 양립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이들은 합리성을 다소 객관적인 의미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불확실성은 완전한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전학파의 합리성에 비해 보다 넓은 의미의 합리성 개념이 허용된다. 여기서 합리적 행동이란 비록 사후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의미한다.⁶⁾

많은 케인즈 연구자들은 케인즈의 관습을 비이성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Meeks(1991)는 불확실성 아래 단순히 관습에 의존하는 것은 나름 분별 있는 전략이며 이러한 행동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케인즈는 관습을 미래의 가이드로 여기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 사건에 대한 이러한 연결은 물론 논리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합리적 믿음에 근거한 주장 역시 대부분 불완전하므로,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 불충분한 근거에 의존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투자가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의 과도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비이성적 요소가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케인즈는 부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케인즈의 저작에서 관습과 합리성을 연결시키고 있는 서술들을 찾아내고 있다.

6) 합리성과 비합리성이란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Dequech(1999, p.178)은 무합리성(irrationa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무합리성이란 지식에 기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식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는 무합리성이 끼어들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기대를 형성함에 있어 극히 불확실한 일들에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느끼는 사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인도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록 그러한 사실은 우리의 지식이 희박하고 모호한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결정적인 관계는 적다고 하더라도 말이다(Keynes, 1973a, p.148).

실제 이성의 활용에 있어 우리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은 주장에 의존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Keynes, 1973c, p.3).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비합리적인 심리의 파도에 의존한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Keynes, 1973a, p.162).

Lawson (1985) 역시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이용가능한 지식이 주어진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할 그럴듯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행동은 케인즈에게 합리적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투자자들이 관습에 의존할 때 이것이 왜 이성적인 행동인가에 대한 이유는 케인즈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 관습이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한 관습적 판단은 상당한 정도의 연속성과 안정성과 양립할 수 있다(Keynes, 1973a, p.152).

O'Donnell(1989, p.261)은 불확실성 아래 합리적 행동에 대한 케인즈 이론의 핵심을 다음과 같은 세 명제로 정리하고 있다.

- (1) 미래에 대한 기대는 대부분 현재 경험에 의존한다. 이것이 귀납법의 단순한 형태이다.
- (2) 현재의 의견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3) 우리의 판단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한다.

오도넬은, 강한 의미의 이성이 실패할 때 합리적인 인간들은 약한 합리성에 의존하게 되며 케인즈에 있어 이성은 여전히 인생의 가이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확실성 아래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는 그 자체로 어려운 논쟁거리임과 동시에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서도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통상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신고전학파의 합리성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해왔다. 관습을 합리성의 일환⁷⁾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고전학파의 합리성의 개념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신고전학파와 차별되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특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관습에 의한 의사결정 자체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책적 개입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합리적 기대학파의 정책무용성에 맞서 불확실성과 기대가 포스트 케인지언 거시경제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강조해왔다. 단순히 임금경직성 등에 의존하여 실업을 설명하는 것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가격은 신축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주체들은 유동성 선호를 높이며 약세 전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장기적인 비자발적 실업 또는 극심한 경기변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해왔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거시경제적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리든가 이자율을 내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경제주체들의 이 '잘못된' 심리, 관습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⁸⁾ 케인즈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실업, 극심한 경기변동)를 낳는 개인이나 사회의 관습이나 관행은 싸워서 고쳐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극복 대상인 이 관습에 계속 합리성을 부여할 경우 정부 개입의 근거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불확실성 아래 정부는 시장이나 사회의 평균적 의견을 뒤집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이나 사회의 평균적 의견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면 정부는

7)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논자들에 따라, 약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등 다양하다.

8) 최근의 많은 문헌에서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케인즈 저작에서는,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늘리더라도 민간의 유동성 선호가 따라 증가하여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의 기대와 관습을 바꾸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개인이나 시장의 관습적 가치에 반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은 개인(민간)이나 정부(공공기관)나 마찬가지로인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에 형성된 잘못된 관습, 평균적 의견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아래서도 정부나 공공기관은 더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더욱 절실해진다. 이는 케인즈적 논리를 따르는 연구자들이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관습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시장과 민간 사회에 형성된 관습이 완벽히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중간적 위치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습의 합리성이 강조될수록 불확실성 아래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시장에 비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하다.

V. 재량인가 준칙인가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정부의 개입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들을 개선해가는 것이다. 경제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는 더 나은 거시경제적 성과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기대, 평균적 의견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최근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해 많은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제도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일찍이 케인즈적 입장에서 금융불안정성을 연구했던 Minsky(1996)는 전후 자본주의가 자금관리자 자본주의로 변화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이 자금관리자 자본주의가 불확실성을 더 증가시켜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왔고,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Kregel(2008)과 Wray(2008, 2009)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증권화 등 금융혁신과, 은행업과 증권업의 경계를 허문 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등의 규제완화가 서브프라임 위

기의 원인임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사회적 관행과 질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진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오스트리아 학파와 달리 케인즈의 경우 제도는 인간의 통제 아래 있으며 이성의 산물로 보았다. Carabelli & Vecchi(2001)에 따르면, 똑같이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하이에크와 케인즈가 정책 개입에 있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만든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점이다. 기존의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은 자생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분별 있는 판단과 행동'에 의해 새로운 관습이나 관행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에 의존해서 행동한다면 절대 새로운 관습이나 관행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케인즈의 이러한 입장은 합리적 구성주의(rational constructivism)로 표현된다. 즉 사회와 경제의 발전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의도성, 합리성이 필요하다. 재량적 정책은 바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합리적 구성(rational construction)인 것이다(Carabelli & Vecchi, 2001, p.238). 불확실성 아래 사회적 해악을 낳는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 주체들보다 더 합리적인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가령 유동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자본의 한계효율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혹은 비관적인 전망으로 실업이나 극심한 경기변동이 나타날 때 정부나 공공기관은 개인이나 시장의 관습이나 관행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하며 이러한 재량적 개입을 위해서는 부분적이지만 이성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의 재량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불확실성과 관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개입이 좋은 개입이며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량적 개입이 좋은 개입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불확실성과 관습이라는 시각에서 좋은 정책, 정책의 효과를 이야기하려면 개인과 시장의 관습, 평균적 의견을 어떻게 해야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개인과 시장의 기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으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고 따라서 재량보다는

준칙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Bateman, 1991, 1996). 극심한 경기변동을 막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면 정책당국자가 해야 할 일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정책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살펴야 하고 정책 시행은 매우 미묘한 문제가 된다. 이 때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불규칙한 정책 개입은 오히려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베이트만에 따르면, 그 동안 준칙에 대한 케인즈의 정책적 입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었던 것은 다분히 수사학적 문제이다. 준칙이라는 용어가 합리적 기대학과 등 신고전학과 입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인즈는 정책 수행에 있어 준칙은 필연적이며 정책은 매우 좁은 한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고 베이트만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일반이론』에는 정부 부채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하는 구절은 없으며, 『일반이론』 이후 케인즈는 공격적인 정책 개입보다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수단들을 찾는데 주력하였다고 베이트만은 주장하고 있다.

VI. 맺음말

불확실성에 대한 강조가 케인즈 경제학과 다른 이론들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임은 분명하나 불확실성이 정부 개입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미래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확실성으로부터 개입의 대상이 되는 나쁜 결과만을 상징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정의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민간 경제주체나 정부나 미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때 정부 개입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려면 불확실한 환경이지만 정부가 개인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 점은 케인즈 연구자들이 좀 더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많은 케인즈 연구자들은 관습을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

하지 않으며 신고전학파의 좁은 의미의 합리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관습의 합리성이 강조될수록 이러한 관습을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그 만큼 약화될 수 있다. 넷째, 통상 케인지언은 재량, 통화주의/새 고전학파는 준칙이라는 이분법이 거시경제학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케인즈 정책의 목표가 관습의 교정이라고 한다면 민간의 관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준칙에 의한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케인즈 경제학이 불확실성의 경제학이자 동시에 정부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고 일자: 2010. 5. 14. 심사 및 수정 일자: 2010. 6. 15. 게재 확정 일자: 2010. 6. 18.

◆ 참고문헌 ◆

- Akerlof, G., and R. Shiller (2009) *Animal Spiri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teman, B. (1991), "The Rules of the Road: Keynes's Theoretical Rationale for Public Policy," in *Keynes and Philosophy: Essays on the Origin of Keynes's Thought* edited by Bateman, B., and Davis, J., Edward Elgar.
- _____ (1996), *Keynes's Uncertain Revoluti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ernanke, B., and M. Gertler (1999), "Monetary Policy and Asset Price Volatility,"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pp.17-51.
- Bordo, M., M. Dueker, and D. Wheelock (2000), "Aggregate Price Shocks and Financial Instability: An Historical Analysis," *NBER Working Paper* 7652.
- Borio, C., W. English, and A. Filardo (2003), "A Tale of Two Perspectives: Old and New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BIS Working Papers*, No. 127.
- Camerer, C., and M. Weber (1992), "Recent Developments in

- Modeling Preferences: Uncertainty and Ambigui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5, pp.325-370.
- Carabelli, A., and N. Vecchi (1999), “Where to draw the line? Keynes and Hayek on Knowledge, Ethics and Economics,”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6:2, pp. 271-296.
- _____ (2001), “Individuals, Public Institutions and Knowledge: Hayek and Keynes,” in *Knowledge, Social Institutions and the Division of Labour* edited by Porta, P., Scazzieri, R., and Skinner, A., Edward Elgar.
- Davidson, P. (1996), “Reality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18, No. 4, pp.479-508.
- Dempster, G. (1999), “Austrians and Post Keynesians: the Questions of Ignorance and Uncertainty,”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2, No. 4, pp.73-81.
- Dequech, D. (1999), “On Some Arguments for the Rationality of Conventional Behaviour under Uncertainty,” in *Keynes, Post Keynesian and Political Economy* edited by Sardoni, C., and Kriesler, P., Routledge.
- _____ (2000), “Fundamental Uncertainty and Ambiguity,” *Eastern Economic Journal*, Vol. 26, No. 1, pp.41-60.
- Dunn, S. (2003), “Keynes and Transformation,” in *The Philosophy of Keynes’s Economics: Probability, Uncertainty and Convention*, edited by Runde, J. and Mizuhara, S., Routledge.
- Estrin, S., and P. Holmes (1985), “Uncertainty, Efficiency and Economic Planning in Keynesian Economics,”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7, No. 4, pp.463-473.
- Fleetwood, S. (1995), *Hayek’s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Greenspan, A. (2002), “Issues for Monetary Policy,” at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 Keynes, J. (1972), *Essays in Persuasio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IX, Macmillan.
- _____ (1973a),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 _____ (1973b),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Part II Defence*

- and Development*,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IV, Macmillan.
- _____ (1973c), *A Treatise on Probability*, Macmillan.
- Kregel, J. (2008), "Using Minsky's Cushions of Safety to Analyze the Crisis in the U.S. Subprime Mortgage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7, No. 1, pp.3-23.
- Lawson, T. (1985), "Uncertainty and Economic Analysis," *Economic Journal*, 95, pp.909-927.
- McKenna, E., and Zannoni, D. (1998), "Post Keynesian Economics and the Philosophy of Individualism,"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20, No. 2, pp.235-249.
- Meeks, G. (1991), "Keynes on the Rationality of Decision Procedures under Uncertainty: The Investment Decision," in *Thoughtful Economic Man: Essays on Rationality, Moral Rules and Benevolence* edited by Meeks, 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sky, H. (1986), *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Uncertainty an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Capitalist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X, No. 2, pp.357-368.
- O'Donnell, R. (1989), *Keynes: Philosophy, Economics and Politics*, St. Martin's Press.
- Schwartz, A. (1995), "Why Financial Stability Depends on Price Stability," *Economic Affairs*, pp.21-25.
- Shackle, G.L.S. (1955), *Uncertainty in Economics and Other Refle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67), *The Years of High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idelsky, R. (1992), *John Maynard Keynes Vol. 2: The Economist as Saviour 1920-1937*, Macmillan.
- Winslow, E. (1986), "Keynes and Freud: Psychoanalysis and Keynes's Account of the Animal Spirits of Capitalism," *Social Research*, Vol. 53, No. 4, pp.549-578.

Wray, R. (2008), "Lessons from the Subprime Meltdown," *Challenge*, Vol. 51, No. 2, pp.40-68.

_____ (2009), "The Rise and Fall of Money Manager Capitalism: a Minskian Approach,"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3, pp.807-828.

Uncertainty, Convention and Economic Policy: Keynes and Post Keynesians

Jaehong Hw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ogical link between uncertainty and policy intervention.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Keynes provid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Post Keynesian regards fundamental uncertainty as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Keynes's economic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logical link between uncertainty and policy intervention for the consistency of Keynes's theoretical system.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logical link. This paper examines the post Keynesian research on this theme and shows the problems to be solved.

KRF Classification: B030106

Key Words: Uncertainty, Convention, Policy

* MOKWON University, Department of Digital Economics, Lecturer,
e-mail: zootjhong@hanmail.net